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전북도-정치권, 지역발전 ‘원팀’

### 송하진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중장기 SOC 계획 반영 등 시급 사업에 힘 모으기로 협의회 후 국회·청와대 인사들 만나 현안 해결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3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원팀이 돼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발전을 견인할 2022년 국가예산사업의 부처 단계 최대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과 SOC 국가중장기 종합계획반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먼저, 2022년 국가예산 중점 타깃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유했다. 현재 2022년 국가예산은 정부 부처 사업부서 단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고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부처별 예산부서 조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도는 정부에서 큰 관심을 표하고 있는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조성사업, 그리고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꿀 미래신산업, 삼각농업 농생명 등 부처 단계 반영이 필요한 타깃 사업 35건을 선정해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부처 부정적·미온적 사업에 대해 상임

위원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도의 중점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국가 중장기 SOC 계획 반영 등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대통령 공약이행과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이전 공공기관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외에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현안 법안 통과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을 보태주길 부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탄소소부장 특화단지과 신단대개조사업 지정, 군산형 일자리 선정 등 전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며 “전북형뉴딜과 전북의 경제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3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원팀이 돼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은 협의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질을 바꿀 국가예산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 시,군의 소통을 강화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송 지사는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SOC 중장기종합계획,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대법 처리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정사진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 종료 후 곧바로 국회와 청와대로 이동해 정부와 정치권 핵심 인사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송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춘석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만나,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 반영과 국립공공의대법 등 현안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전북 연고 국회의원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 등도 만나 산적인 현안 해결에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후 청와대로 발길을 옮

겨,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과 단일환 경제수석을 만났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광역 철도를 확대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전북도 건의사업이 대부분 빠져 있어 도민이 허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및 동서회합과 상생을 위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국가식물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간 철도건설 사업 등 전북도 건의사업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유호성 기자

### 전북도, 전문직위 상반기에 전면 개선

전북도가 도정 핵심사업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위(전문관)’ 제도를 상반기에 전면 개선한다. ‘전문직위(전문관)’ 제도는 전문지식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해 그 직위에 장기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는 2021년 4월 현재, 52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40개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전문관을 선발하고 있다. 전문관 제도는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기술감사, 국가예산 분야 등 도정 주요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개선은,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이동화대전담 전문관 등 해당 직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직위 제도를 적극 활용한 계획이다.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체 전문직위에 대한 직무분석과 원인분석 등을 통해 난도가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장기 미선발 직위나 전문직위로서의 적합도가 낮은 직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유호성 기자

5일 어린이날 관계로  
신문은 6일 발행합니다.

## 전라중·삼례동초 신설대체이전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4년 개교 목표... 전주교육지원청사 신속·이전도 통과, 에코시티 제3초는 ‘재검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주 에코시티 내 전라중 신설대체이전과 완주 심봉지구 내 삼례동초 신설대체이전, 전주교육지원청사 신속이전이 지난날 28일~29일 서울에서 개최된 교육부 2021년도 정기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에코시티 내 전주화정중 설립 승인(2017년 4월) 후 계속되는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위한 중학교를 추가 설립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가칭 전주봉암중 신설 계획을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으나 주택사업의 분양공고 세대수 미흡에 따른 학교설립시기 조정' 사유로 재검토 결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라중 학교구성원들의 동의(찬성률 84.8%)를 얻

어 신설대체이전으로 전환해 재차 심사를 의뢰했지만 전라중 전주교육지원청 이전사업에 따른 이전지(부지) 활용 계획 재검토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재검토’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재 전라중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사를 이전하며, 전주시에 원도심 학교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학생교육지원시설을 함께 이전하고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새로 배치하는 전주교육지원청사 신속이전 계획을 별도 수립해 제출했다.

현(現) 전주교육지원청사는 도내 공공기관에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전라중 신설대체이전 계획을 보완·제출한 결과 전라중 신설대체이전, 전주교육지원청사 신속이전 2건 모두 이번 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삼례동초를 학교구성원들의 동의(찬성률 77.0%)를 얻어 완주심봉지구로 이전하는 삼례동초 신설대체이전도 이번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에코시티 제3초등학교는 ‘설립시기 조정’, ‘학교용지위치 재

검토’의 사유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에코시티 내 전주화정초등학교와 전주자연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해소와 향후 입주하는 공동주택 초등학교들의 배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에코시티 2단계 부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에코시티제3초 학교용지가 단독주택지구로 위치해 있어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초등학교들의 원거리 통학이 예상되며, 제3초등학교용지 반경 2km 이내에 전주초포초와 전주

주교육지원청 이전지 매각대금을 전라중 공사비에 투입하는 조건으로, 삼례동초 신설대체이전은 학교스포츠클럽 전용야구장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전주교육지원청 신속이전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계획 구체화 및 전주교육지원청 이전지 매각대금을 전라중 공사비에 투입하는 조건으로 통과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전라중과 삼례동초는 30학급 규모로 제1회 추경에 설계비 등을 반영하고 3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주교육지원청 신속이전은 2025년 9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삼봉유치원도 9학급 규모로 2024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은성 기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새만금!  
그 중심에 위치한 김제시

THE BEST CHOICE!  
FOR YOUR SUCCESS!

## 김제시가 기업의 든든한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잘 갖춰진 교통망과 파격적 인센티브  
그리고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기업성공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 지평선일반산업단지

- 면적 : 90만평
- 분양가 : 398,000원/3.3㎡(120,395원/㎡)
- 연락처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1팀(063-540-3770)

### 김제자유무역지역(임대)

- 면적 : 30만평(지평선일반산업단지내)
- 임대료 : 66원/㎡
- 연락처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2팀(063-540-3458)

### 잘 갖춰진 교통망, 전국 주요도시 반나절이면 OK!

- 고속도로 : 호남, 서해안, 새만금~포항(2023년 완공)
- 공항 : 군산공항, 새만금신공항(2028년 완공)
- 항만 : 군산항, 새만금신항(9선석)
- 철도 : KTX, 호남선, 전라선

### 파격적 인센티브, 기업 성공투자의 밑거름

- 분양가 보조금(최대 20%) 및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 지평선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수익계약 가능
- 김제자유무역지역 : 저렴한 임대료, 관세특례 적용